

생산량 줄이고 비상경영 돌입 철강업계 위기속 몸집 줄이기

중국산 저가제품 국내시장 잠식
美 '트럼프 리스크'도 부담 작용

포스코, 포상 1선재공장 폐쇄 결정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 폐쇄 추진
동국제강, 야간 생산 시스템 전환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재공장 /포스코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대외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돼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기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지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선재와 같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내수에서 소비되지 못해 남은 재고 물량 수출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제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공장 가동률도 매년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분

기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포인트, 4.3%포인트 낮아졌다. 동국제강도 봉강형이 9.5%포인트, 후판이 2.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가동률 조정과 몸집 줄이기 등 비상경영에 나서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포상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포상 1제강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섀utdown이다. 내수 저가재 시장은 이미 해외 저가 수입재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해당 설비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저가재 가격 중심의 경쟁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자동차용 CHQ(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선재 생산·판매를 재편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또한 철강업황 불황의 여파로 포항2공장 생산시설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협의 중에 있지만 사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 법인인 현대 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자산과 부채를 지난 7월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압연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지난 6월부터 야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철근 수요가 급감해 고강도 감산 조치에 취한 것이다. 이는 야간 전기료가 낮 시간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기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철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1기 트럼프 정책을 고려할 때, 국수출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 시행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 축소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입 쿼터제 축소,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21일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개최된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 명명식 행사장에서 김경배 HMM 사장(왼쪽 다섯번째), 안젤리키 프란고우 나비오스마리타임 회장(왼쪽 여덟번째),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MM

HMM, 국내 최초 LNG추진선 2척 도입

7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넷제로 박차... 내년 1월 투입

HMM이 LNG를 연료로 하는 77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도입한다.

21일 HMM에 따르면 이날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LNG 추진선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선박은 갈수록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중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선박이다. 그리스 선주사인 나비오스가 국내 조선사인 HJ중공업에 발주했으며, HMM이 최대 14년간 용선해 운항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FuelEU Maritime(해운연료규정) 등 많은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들은 운항이 어려울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

박은 선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선박의 대체연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LNG가 유용한 저탄소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프랑스 해운조사 전문가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올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55%가 LNG 추진선이라고 분석했다.

LNG 추진선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각각 30%와 85%,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감소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지중해와 극동아시아를 잇는 HMM의 독자 노선인 FIM 서비스에 투입돼 부산~중국~인도~지중해 등을 운항할 계획이다.

HMM 김경배 사장은 "금번 인도되는 LNG 연료추진선박은 HMM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R&D혁신' 조현범 회장, 獨서 기술력 입증

한국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 車전문지 테스트 '매우 뛰어남' 평가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

조현범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혁신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중심지 독일을 사로잡았다.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한 테스트에서 '매우 뛰어남(Very Good)'을 획득하며, 글로벌 최상위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조현범 회장이 오랜기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를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다. 조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은 혁신적 기술력을 통해 비전과 목적, 시대 정신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 11개의 겨울용 SUV 타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눈길과 젖은 노면, 마른 노면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제동력, 핸들링, 회전 저항, 소음 등을 평가했다.

테스트 결과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는 겨울용 타이어 주행 성능과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눈길 핸들링과 제동력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수막현상 방지 성능에서 다른 타이어를 월등히 앞섰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이 녹아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겨울용 타이어에는 우수한 배수 성능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승용차 타이어 제품인 '윈터 아이셉트 예보3'는 유럽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지 성능 테스트에서 꾸준히 호평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아우토 빌트 스포츠카'가 실시하는 겨울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위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등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이 이끄는 한국타이어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 등에 기반하여 타이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첨단 기술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독일 최고 권위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 독일 소재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티유비아슈드'가 시행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 결과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화학-美엑슨모빌 탄산리튬 공급 맞손

2030년부터 10년간 10만t 물량 확보
북미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 기대

LG화학이 미국에서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 경쟁력을 강화한다.

LG화학은 미국 세계 최대의 석유-에너지기업 엑슨모빌(ExxonMobil)과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엑슨모빌은 미국 텍사스 아칸소(Arkansas) 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으로부터 공급하고 LG화학은 양극재를 생산한다.

엑슨모빌은 지난 2023년 1만4700만평 규모의 아칸소 염호를 인수해 같은 해 11월부터 직접리튬추출(DLE) 기술로 리튬 채굴을 시작했다.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탄산리튬 400만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LG화학은 직접리튬추출 기술 개발에 필요한 RO필터(Membrane) 등 다양한 소재로 엑슨모빌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엑슨모빌로부터 탄산리튬을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t의 물량을 확보해 북미 내 리튬·양극재·배터리로 이어지는 안정



(왼쪽부터) 엑슨모빌 댄 홀튼 부사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LG화학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으로서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엑슨모빌 저탄소솔루션 댄 암만(Dan Ammann) 대표는 "양사간 협약을 통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리튬 산업을 주도하며, 탄소 감축,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